

## 그리워서 그리는 화가

January 12, 2022 | 윤혜정 국제갤러리 디렉터

Page 1 of 4



부산에 위치한 문성식 작가의 작업실. 전연의 장미를 소재로 한 회화는 미완성작이다.  
동서양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고안한 스크래치 기법이 문성식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작품.



자고 일어나면 어떤 그림이 얼마에 팔렸다는 환상적인 소식이 갱신되는 요즘에도,

**회화 작가 문성식의 판타지는**  
**“그리고 싶다”는 욕망 하나만으로**  
**그리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Photographer WOOJUNG LEE  
 Contributing Editor  
 HEJJEONG YOON  
 Editor SOHYUN CHO

“그리고 싶다. 라는 마음은 굉장히 복합적이예요. 할 말이 있어서도 그리고, 뭔가 예뻐서도 그리고, 멋있어서도 그리고, 그리워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토록 솔직하고 정직하며 가슴 떨리는 화가의 고백을 들어본 적 없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문성식은 물론 만나본 적 없는 술한 예술가의 동기와 동력, 그리고 살아본 적 없는 삶의 내밀한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 심장을 간질인다. 나이가 통굴에 변화를 그리던 태곳적부터 유명 미술 잡지가 올해 영향력 있는 문화 예술인 1위로 사람이 아니라 NFT를 끄는 오늘날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회화의 존재 이유마저 아우른다. 무엇보다 “그리고 싶다를 주어로 삼은 이 문장은 미술사니 담론이니 현대미술이 신봉하는 개념 모두를 가능케 하는 진실이 바로 ‘그리고 싶다’는 욕구 자체임을 역설한다. 그림이 가장 인간적인 미술이라는 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단지 작품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욕망을 어찌할 바 몰라 울고, 웃고, 좌절하고, 환희한 화가라는 존재 덕분이다.

회화 작가 문성식이 5년여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터를 옮긴 것도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그려야 한다는 당위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시도였다. 물감 냄새가 벽에 밴 것 같은 문성식의 공간은 붓과 연필이 미완성작과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곳이자, 화가의 욕망을 가장 순연한 상태로 두기 위한 병커인 셈이다. 스스로를 혼란한 미술계에서 물리적으로 떨어뜨려놓은 그는 부산에서 작업하면서 비로소 지난 2019년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기법과 스타일의 작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담한 작업실에서 별이 잘 드는 자리를 권한 문성식은 툭툭한 맛이 매력적인 발효 커피를 내려주며 “하지만 전시 준비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

동서양의 전통에서 차용한 스크래치 기법이 인상적인 몇 점의 대작과 유희 바탕을 연필로 긁어 그린 다수의 이가자기한 드로잉은 문성식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대표 전작, 즉 卍호하게 버린 과거의 기억을 무심한 연필 선으로 표현한 연필 드로잉 작업, 원근법을 잊은 채 화면 구석구석을 정교한 붓질과 디테일로 집요하게 채워 넣은 유희 등과 비교하자면, 새 작업은 능수능란하거나 매끄럽지 않은 대신 특유의 소박함과 생동감으로 승 쉬었다. 오는 1월 21일부터 열릴 부산 첫 개인전에서는 작업은 유지하되 “까만색을 더 까맣게 표현하고 번지는 효과와 스크래치 효과를 추가하는 등 기술적으로 진보한 작품”을 선보인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얼마나 완결성을 더했는가의 문제만큼 중요한 건, 이것이 화가가 새로 찾은 길에 희미하게나마 확신을 가졌다는 의미이며, 호기심과 불안을 겪어내며 얻은 고요한 확신이 반짝이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다운 것이 평가에 대해 오래 고민해왔는데, 어쨌든 부산에서 나다운 것에 조금 더 기간 느낌이 들어요. 무언가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론이 나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한다면, 선택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예요. 선을 긋는 행위에는 내 안의 우연과 필연이 다 섞여 있어요. 선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 표현해내는 것이 정수다. 나머지는 다 내 피로 기휘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르렀고, 유희 바탕에 연필로 그리는 드로잉을 교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물감이 마르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대상을 따라가며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으로 본 것 직관화, 판넬화해서 그리는 거죠. 전에는 평가를 휘두르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그 감각을 좀 알겠어요. 화가에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즉 힘 있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나왕 할판 벽에 빼곡히 붙은 평균 A4 사이즈의 드로잉 수십 점, 그러



유성물감을 칩한 화면에 연필로 선을 만들어내는 드로잉의 흔적. ▲▲ 문성식 작가.

므로 문성식이 발견한 '용기의 단서'다. 꽃, 정원, 폭포, 산, 구름, 벽돌집, 껌안은 납녀, 고양이, 과수원, 나무동치, 꽃이 만발한 나무, 어머니 칠순 자리에 모인 가족... 그때그때 보고 만난, 같이 고운 일상의 조각,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릴" 풍경이자 눈물겹도록 '지시하고 사소하지만 공평한' 대상은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 요소이지만, 특별한 보편성을 포착하는 안목과 이를 그림으로 만드는 솜씨는 그의 전매특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이나 운명, 크고 작은 문제를 관찰하는 건 소위 그의 서툰 철학이었고,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라 소소한 인간으로서 고민한 것"들이 알뜰한 인생과 삶의 양기성에 대한 일종의 예시가 되어 캔버스에 부려졌다. 달라진 건 전작이 오래 묵힌 채 각인된 '화가의 기억'을 그린 거라면, 지금의 작품은 화가의 시선으로 포착한 생생한 풍경을 그림의 기억으로 각인한다는 사실이다.

"드로잉의 즉흥성이 현대적으로 느껴져요. 시간과 기억의 흐름에 개입해서, 내가 본 걸 깨워내어 평가를 새기고, 재료가 마르고 굳어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거죠. 오늘날의 생생함, 생겼다 사라지는 인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고착되도록 하는 게 화가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고흐의 연필 드로잉이나 수채 드로잉을 떠올려보세요. 고흐는 눈리보다 직관적 이해에 의존적인 순수한 화가예요. 주변의 별거 아닌 흔한 풍경을 그렸는데, 그 선이 너무나 쾌활한 상태로 고착되어 그림이라는 존재로 환원되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느껴지는 그 선의 상상함이, 전 정말이지 좋아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옛 화가에게도 영감과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매우 시대적이고, 진실한 그림이죠. 박수근의 조형적이고 공예적인 느낌, 이중섭의 회화적이고 운동감이 느껴지는 필체 등을 회화적으로 섞어 지금 시대에 맞게, '문성식스럽게' 만드는 것이 제 당면 과제입니다."

화가의 그리는 행위는 화면이라는 물질을 만나, 그림이라는 물성을 가진 오브제로 남는다. 그런 그림을 대면한 나의 사유는 미술사적 체계적 의미를 따라 가려 애쓰지만, 나의 감정은 결국 그림을 그린 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감동으로 증폭된다. '실로 훌륭한 그림을 그렸구나 싶을 때보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할 때, 회화의 시간성과 나의 시간성이 절묘하게 만나고, 일상의 공기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당대 화가들은 저마다의 미학으로 자신의 행위성을 그림에 담아놓는데, 우리는 이를 두고 스타일 혹은 회화 언어라 일컫는다. 문성식의 고유한 행위성 역시 캔버스와 손 사이에서 잔잔히 운동한다. 물감이 두껍게 발린 화면에 연필심으로 흡을 파다시피 그런 그림의 선은 막 꿈을 꿈틀하고, 부조와 같은 일체감이 느껴진다. 문성식의 회화는 눈과 손, 몸과 마음의 필사적인 움직임, 작가가 현존했음을 명쾌하게 증명한다.

"형무소 같은 데 가보면 당시 사람들이 '나가고 싶다' 같은 문장을 벽에 써 놓은 걸 볼 수 있죠. 그 딱딱한 데 무언가를 새기면서까지 행하고자 했던 인간의 의지, 처절한 아우성 같은 게 느껴져요. 내 그림도 결국 굽어서 만드는 회화이고, 표면 위에서 폄지락거리던 저의 호흡이,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 이 화가가 여기서 붓을 휘두르고 싶었구나, 하는 쾌적이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 드로잉에 연하게 채색한 이 작품을 볼 땐 정말 상쾌하게 작업했구나, 하는 게 와닿았으면 했고요. 작가라는 인간이 열심히 붓질해 에너지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림은 생명력을 갖추게 돼요. 어느 시대나 유효한 에너지의 교환,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요."

미술가가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커다란 사건이다. 단순히 방식 및 형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정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지지해온 이들을 실망시킬 각오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성식에게 그림을 그리는다는 '작가로 활동한다'보다 상위개념이었던 것 같다. 그는 "그림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이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고,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가" 같은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느라 30대 내내 고투했다. 그림에 현존성을 새기고 싶다는 그는 공교롭게도 미술계에 새겨진 자기 존재감을 즐기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다는 비망 끝에 명성은 터득도 도움이 안 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시절인 2005년 무렵, "어떤 포마 예가 회한한 감성으로 그린" 놀라운 그림은 '최연소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라는 두근두근 유용한 타이틀을 선사했다. 그러나 너무 일찍부터, 너무 오래 '재능 있는 젊은 작가'로 불려온 그는 명성의 무게를 운몽으로 받아내며 긴 젊음의 대가를 그만큼 긴 혼란과 방황을 치러야 했다.

"기억을 길어 올리는 그림의 특성상 소재는 고갈되어버렸고, 한 달을 쓴

CONTRIBUTING EDITOR: 윤복정(국립현대미술관), 이나, (내부 사적인 행동기록) 저자

선이 주가 되는 드로잉에 연하게 색을 칠한 새로운 작업들.  
 ▶▶ 별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마련된 책상에서 탄생하는 '문성식스러운' 드로잉.



아기자기, 럭셔리, 귀부인, 사랑스런. ▶▶ 언젠가 정원을 가꾸고 싶은 문성식은 종종 꽃을 갖다 둔다.

아붐토이드 보름을 쓰러져 있는 작업 방식은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 후 '자기에게 맞는 그리기와 너무 가혹하지 않은 그리기, 두 가지가 내가 계속 화가로 사는 데 필수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벽에 대한 강박도, 그림뒤편에 대한 욕심도 버렸고요, 그림에 대한 제 이해력도 부족했던 것이, 말하는 그림, 주장하는 그림만 그림이라고 착각한 거죠. 말이 없는 그림도 충분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화가가 그림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해야 관객도 보편적인 것에 공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길 닿는 대로, 아무거나, 아무 방법으로나 다 그려보는 사람으로 살자 싶어요. 호크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활짝 핀 장미가 아니라 완전히 일그러진 장미도 곧 그려볼까 해요. 왜 이걸 그렸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싶어서라고 답하려고요(웃음)'

한 인생이, 한 의식이 세상을 보는 시선은 역사, 선입견, 스타일 모두를 반영하기에, 한낱 캔버스는 작품이 된다. 그래서 회화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문성식 회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붓도, 물감도, 연필도 아닌, 바로 문성식이라는 화가다. 순진하게 탐미적인 문성식 작업의 기원, 작가의 말마따나 "이렇게 공예적이고, 소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기자기하고 재잘재잘한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는 아무도 모른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크게 혼났을 수도 있고, 선이 빠져나가는 걸 무서워했을 수도 있고, 시골에서 평범하지만 정 많은 가족과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작은 키 덕에 어린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관찰만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성식은 매 순간 용기를 내야 했지만, 그의 그림은 모두 부끄럼 없이 보여 주었다. 회한하고도 총체적인 문성식이라는 도구야말로 자기 그림의 필연적인 에센스임을 인정하는 화가, 모든 것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그림은 고스란히 화가의 인생을 함께 살아내기에 결국 문성식의 "그리고 싶다는" "살고 싶다"로 번역된다. (VK)